

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능한 대상(nonactual possible)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완전한 묘사를 제공하기 위한 명백한 필요는 (신과 달리)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 관하여 단정명제들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케니의 비판은 내가 보기 에 극복될 수 없는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철학적 논리자들을 위한 탐구문제를 부과하는 것일 뿐인 듯이 보인다.<sup>19)</sup> 우리가 존재했어도 모르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 관해 참된 진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세 포——이것으로부터 내가 발육되었다——가 특정시점에 특정방법으로 분열되었더라면 나와 꼭 같았을 일관성 쌍둥이에 관해 참된 진술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논리학은 그런 진술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처해야만 할 것이다.

케니의 두 번째 비판은 비현실적인 가능한 대상들 혹은 그 현실성이 의심되는 가능한 대상들에 대해 참된 진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코기토의 근거를 제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데카르트에 대한 심각한 체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다음의 답변이 떠오른다. 앞에서(4장) 나는

사유(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활동)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사유(혹은 어떤 작용인)를 갖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

는 보다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위하여, 나는 사유로부터 존재로 옮겨

19) 대안적인 접근방법에 관해서는 Nicholas Rescher의 *Philosophical Analysi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9)에 있는 논문 (The Concept of Non-existent Possibles)와 앞서 인용된 Richard Routley와 Valerie Routley의 공동논문 (Rehabilitating Meinong's Theory of Objects)를 참조하라.

기는 추리를 정당화하는 원리에 대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으로 내가 간주했던 다음의 것을 거절했었다.

어떤 술어가 참되게 혹은 거짓되게 어떤 주어에 적용될 때는 언제나, 그 주어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예컨대 AT VII, pp. 175~76; HR II, p. 64에서).

이것이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글쎄, 내 생각에 코기토에 있어서 우리는 진술의 진리성(혹은 허위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속성 혹은 활동의 존재로부터, 즉 시간 중의 어느 시점에 그 명제를 예시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추리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작용인과 활동(혹은 실체와 속성) 간의 구분은 기능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간의 구분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 현실의 세계 속에 어떤 사유가 있다면, 이 현실의 세계 속에 어떤 사유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 현실의 세계에서 아니라 단지 어떤 다른 가능한 세계에서 사고활동이 예시되었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어떤 사유자가 있을 것이다.

주변규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코기토가 다음의 용어들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유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제와 결론 둘 다로부터 「나」를 제거하기 때문에, 코기토 논증의 논증력이 일인칭 대명사의 논리적 특성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식화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다. 데카르트가 <제 2 성찰>에서의 코기토 논증을 제시한 직후 강조하고 있듯이, 그는 그 단계에서